

2020년 3월 9일

KIWOOM DAILY ISSU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Analyst 서상영 02) 3787-5241 ehdlw@kiwoom.com

코로나 19 확산과 주식시장 전망

코로나 19 확산 추이 중국, 한국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변화

코로나 확산 추이 변화

3월 8일 기준 중국 국가 보건위원회는 새로운 확진자가 44건에 그쳤다고 발표하며 중국내 코로나 19 확산은 정체기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또한 질병통제 예방센터가 367건의 새로운 확진자 발생을 발표해 한국도 신규 확진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이르지만 안정기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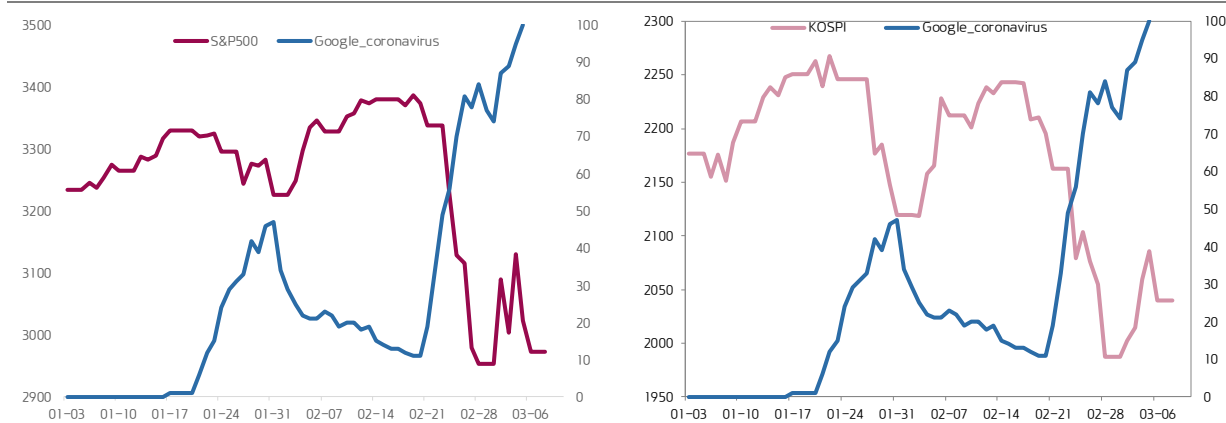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그동안 검사 확대를 주저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던 일본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검사를 확대하자 양국 모두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6일 신규 확진자가 56명을 기록했으나, 전일 32명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이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했다. 미국 또한 지난 5일 197건에서 6일 308건 7일에는 434건으로 하루 100건 이상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검진을 확대한다고 발표해 이번 주 미국 신규 확진자 수 급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탈리아에서 7일 기준 하루에 무려 1,247명이나 급증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에 대응해 국가 금융 중심지인 밀라노를 포함한 롬바르디아 지역의 봉쇄를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또한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 플로리다, 인디애나 등 일부 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미국이다. 트럼프는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으로 조치를 해오고 있다”라며 관련 우려를 외면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처 또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물론 여론이 악화 되자 검진을 주말부터 확대했고, 피해 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에 6일 미 증시에서는 공포감으로 하락했으나, 재정 지원을 발표한 항공업종은 강세를 보이는 등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졌다.

대체로 아시아 신규 확진자 추이는 완만해진 가운데 유럽과 미국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구글 트렌드, S&P500, KOSPI 추이



출처: 구글, 블룸버그, 키움증권, *구글 트렌드: 'coronavirus' 검색 추이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 질병 사례를 감안하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할 때 지수는 변동성을 확대한다. 그러나 확진자 수 증가폭이 둔화될 때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에도 보호무역 확대, 중국발 공급망 훼손 등을 감안 과거와 같을 수는 없기는 하지만, 공포심리가 완화될 경우 지수 반등 가능성은 높다. 특히 과거에도 지수가 조정을 보인 가운데 밸류에이션에 기반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KOSPI 12개월 Fwd PER 5년 평균은 9.9배, 10년 평균은 9.6배다. 이를 KOSPI로 환산하면 1,960, 1,900이다. 이를 감안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공포심리가 확산된다면 KOSPI는 4~7% 조정은 불가피 하지만 밸류에이션 완화에 기대 이후 반등 기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S&P500 12M Fwd PER은 16.7 배로 5년평균에 도달했다. 지난 2월 19일 기록했던 19배를 기록해 IT 버블 이후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 밸류에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일 미 증시는 장 마감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미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어 공포심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역사적 평균인 15.5배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약 8%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주말에 국제유가의 급락이 나타나 투자심리 위축을 더욱 부각 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OPEC이 감산에 합의했으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한 점이 부담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말에 사우디가 감산 합의를 파기하고 오히려 증산을 하겠다고 발표한 점은 이번 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을 비롯한 한국 증시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 등 글로벌 각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급증할 경우, 국제유가의 급락은 지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동성을 통해 지수가 4~8% 내외 조정을 보인다면 밸류에이션 안정을 기반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가 둔화된다면 반등 속도는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이 이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S&P500 업종별 12m Fwd PER



출처: 팩트셋, 키움증권